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문의 : 철강화학과 김현철 과장(2110-5647), 이보라 사무관(2110-5647)

韓-日, 철강시장의 건전한 교역환경 모색

- 제13차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급변하는 세계 철강시장에서 주요 철강 생산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, 철강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, 일본 등과 양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, 4.5일(목) 동경 Imperial Hotel에서 일본과 제13차 한·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함

○ 금번 회의는 김현철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Koichi SHIOTA 철강과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, 철강협회 및 철강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였음

< 제12차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요 >

○ 일시 및 장소 : '12. 4. 5(목) 09:00-14:30, 일본 동경 Imperial Hotel
○ 주요 참석자
- (한국) 지경부 철강화학과장, 한국철강협회, 포스코, 현대제철 등 33명
- (일본) 경제산업성 철강과장, 일본철강연맹, 신일본제철 등 28명

□ 이번 제13차 회의의 주요 의제는

① 주요 스테인리스 생산국인 양국의 시장 및 교역 동향 논의

②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

③ 양국 철강협회 내에 설치된 '통상위원회'의 활동 소개

□ 첫 번째로 양측은 한·일 철강산업 및 양국 간 교역 동향을 점검하고, 특히 스테인리스 시장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

○ '11년 세계 스테인리스 조강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32백만톤('10년 대비 4.3% 증가)으로, 세계 스테인리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음에 주목

* 중국의 스테인리스 생산 급증('11년 12.6백만톤으로 세계 생산의 39.2% 점유)으로 아시아의 스테인리스 조강 생산은 전 세계 생산의 66.5%를 점유
* 세계 스테인리스 생산(만톤) : ('08) 2,593 → ('10) 3,109 → ('11) 3,211
* 양국 스테인리스 생산(만톤) : ('10) 韓 205, 日 343 → ('11) 韓 216, 日 325

○ 이에 양측은 상대국 시장을 상호 존중하고, 통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맡기되,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

□ 두 번째로 최근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, 강재 인증 등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황을 논의하고, 주요 대상국인 한·일 양국은 불합리한 수입규제는 철강 시장의 자유무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우려를 표명

○ 양국 업계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, 향후 이러한 수입규제와 관련 정보 교환 등의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

* '11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은 전년대비 31.2% 증가한 7.3백만톤이며, 수출 비중은 25.2%로 사상 최고 수준임

□ 세 번째로 양측은 양국 철강협회의 '통상위원회' 활동을 소개하고, 수입 급증이나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대응 동향 등을 집중 논의함

○ 일본측은 철강연맹 내의 '국제무역위원회'와 '공정무역위원회'가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, 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,

○ 한국측은 최근('12.1월) '통상대책위원회'가 발족하게 된 배경으로,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철강 품목이 설비의 신·증설로 자체 공급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미미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설명

* 국내 철강통상대책위원회 : 불공정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'12.1월 협회내 설치되어, 주요 철강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
** 열연 7백만톤, 후판 5.8백만톤의 설비능력 확장으로 국내 공급 부족 해소

○ 특히, 한국측은 최근 철강 시장의 수급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어 향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,

○ 이에 양측은 상대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건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하였음

□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중국, 일본 등 주요 철강 생산국과 양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국 철강산업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,

○ 양국 간 통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철강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